

친박 “차기 주자 때리기 그만두라” 친이 “박근혜는 현재 권력 아니다”

한나라 '세종시 끝장토론' 정면 충돌

한나라당 의총은 자칫하면 큰 상처를 입기 쉬운 예리한 '칼날 공방' 그 자체였다.

세종시 당론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22일 한나라당의 의원총회는 예상대로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가 정면 충돌하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의총은 초반부터 고성이 오가는 험한 분위기로 시작했다. 사회를 본 원희목 의원이 “당 대표와 원내대표 발언 이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의총장 이국종 차원에서 “누가 비공개 회의를 동의했다. 공개적으로 하자”(조원진), “두려우게 하거나 없지 않나. 공개합시다”(이정현)와 같은 친박계 의원들의 거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결국 토론에 앞서 참석자들은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약 30분간 ‘가씨움’을 벌였다. 논란 끝에 거수 방식의 표결에 부쳐졌고, 친박계 및 일부 친이계 등 30명가량만 공개에 찬성, 비공개로 결정됐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토론에서는 ‘7개 독립기관 세종시 이전’ 중재안을 제시한 김무성 의원을 시작으로 친이·친박 의원들이 번갈아 연단에 올랐다. 오후 4시30분까지 발언을 신청한 의원만도 40명에 달했다. 토론이 진행되면서 의원들의 발언 신장이 이어지자 조해진 대변인은 중간 브리

핑을 갖고 10명 의원의 발언을 소개했다.

의총 소집 공고가 있는 뒤 가장 먼저 발언권을 신청한 김무성 의원은 “국민은 우파의 분열로 정권 재창출이 물 건너갈 것을 걱정한다. 한나라당의 파국으로 우파가 분열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이 점이 내가 절충안을 낸 이유”라고 설명한 뒤 상호 존중 및 대화, 타협을 주문했다.

이어 첫 포문은 친박계인 한선교 의원이 열었고, 친박, 친이 양측이 차

레로 발언하며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한선교 의원은 “왜 박근혜 때리기를 하느냐. 박근혜가 여러분을 속인 적이 있느냐”며 “차기 유력후보인 박재준 의원은 “세종시 건설로 정부와 이진키로 돼 있는 공공기관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수도권의 기득권을 버리고 균형발전이라는 국민 기본권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영우 의원은 “공공기관이 가야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고, 역대별 주장도 옳지 않다”며 “잘못된 약속을 좋은 약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연립뉴스



한나라당 김무성(가운데)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토론에서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진영은 세종시 수정이나, 원안 고수냐를 놓고 고성이 오가는 등 날선 토론을 벌였다. /연립뉴스

“민생·일자리 창출 등 차질없이 추진”

후대통령 취임 2주년 국정운영 방향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5일 취임 2주년에 맞아 집권 중반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특별 기자회견 등과 같은 행사를 갖지는 않지만 금주 중반기 국무회의와 외부행사 연설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집권 중반기의 국정운영 방침에 대해 설명한다.

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메시지는

지난달 4일 신년 국정연설과 지난 8일 라디오연설에서 밝힌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인 사고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정책사안으로 추진한 세종시 수정안이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는 한편 민생 등 각종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

려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경제 회생을 이휘내는 한편 교육 개혁, 정치 선진화, 남북관계 발전 등도 집권 중반기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개최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포럼 당시 B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던 내용보다 진전된 발언이 나올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청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는 24일 서구 금호동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다음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22일 “등재신청서 제출, 유네스코 1·2차 심사 등 향후 일정을 감안해 사무실을 열고 자료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추진위가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유인물 등 문서자료, 사진·영상물, 유품, 구술자료, 각종 문헌, 국회청문회 및 관련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 등 수만 점에 이른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지방선거 핫코너

강운태 광주 R&D특구 3대 방향 제시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22일 광주R&D특구 지정과 관련해 ▲연구·생산 특화단지 조성 ▲신규단지 확대 조성 ▲국제 투자유치가 가능한 개방형 등 3대 방향을 제시하며 조속한 지정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R&D특구는 연구기능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학이 함께 들어서 생산 기능을 함께 갖춘 특화단지가 되어야 하고, 명실상부한 특구가 되기 위해서는 신규로 2천88만㎡ 가량의 부지가 더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기업체 증가 전남 꼴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2일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최근 10년간 시·도별 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기업체 수는 13.5% 증가했지만, 전남은 오히려 5.25% 감소하며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기업육성 정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중소기업 종사자 수 역시 전국이 45.31% 증가했는데, 전남 15.6%, 전북 17% 증가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석형 “지방선거 분권세력 실험 공간”

이석형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는 22일 “그동안 지방자치 ‘수도권 패권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채 중앙에서 ‘남행열차’를 타고 온 사람들이 지방을 다시 주도하는 ‘약속환’이 반복됐다”면서 “이번 6월 지방선거는 한국정치의 미래를 둘러싼 ‘패권세력’과 ‘분권 세력’ 간의 대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분권 세력이 한국정치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질적 전환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실험하는 정치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윤난실 시의원 연합공천 제안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2일 “민주당의 ‘지방자치 일당 독재’에 맞서 광주시의원 선거 1대 1 대결구도를 만들기 위한 연합공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민주당 동당과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광주희망과대안,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정치네트워크 등을 대상으로 (가칭) ‘광주 민주당 지방자치 일당 독재 심판을 위한 정당·시민단체 연석회의’를 공식제안했다.



장원섭 “광주 친환경 무상급식 실천”

장원섭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2일 “밥 굵은 아이가 없는 광주,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행복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장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는 올해 겨울방학 급식 지원에서 탈락한 결식아동 증가율이 43%로 전국 최고로, 올 겨울 광주에서만 1만1천 명의 아동이 더 추운 겨울을 보냈다”면서 “광주시가 지금이라도 결식아동에 대한 자체의 지원을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성기 여수시장 출마 선언

배성기 전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은 최근 “2012여성세계박람회 성공과 여수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여수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배 전 실장은 “민선4기 들어 박람회 유치했지만 인구는 민선3기말 기준으로 8천명 가량이 줄고, 여수시민 1인당 체우는 15만4천원에서 41만 8천원으로 되레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30년간 산자부에서 일한 경험과 한국생산성분부와 한국중부발전 등 대기업 사장으로 일한 노하우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일태 27일 자서전 출판기념회

김일태 영암군수는 민선4기 군정 소회를 담은 자서전 ‘열정과 변화의 순간들’ 출판 기념회를 27일 오후 2시 영암군 영암읍 영암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자전적 에세이 ‘열정과 변화의 순간들(건우 프린팅 펄브·300쪽·1만 2천원)’은 ‘영암의 미래를 꿈꾸다’ 등 총 7부로 구성돼 있으며, 낙후된 영암읍의 현실을 이겨내고 도약의 토대를 구축한 민선4기동원의 역경과 도전 및 행정철학을 사진과 함께 담고 있다.



남평오 매니페스토 공약 발표

남평오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2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교도소 민주·인권·평화 학습관 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1차 매니페스토 공약을 발표했다. 남 예비후보는 “광주교도소 이적지 역사공원화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14년까지 역사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역사문화탐방벨트와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합격을 원한다면 주소창에 "한빛고시학원"만 쳐보세요

가장 많은 수강생! 최다 합격자 배출! 최고의 시설! 최강의 강사진 압도적 1위 한빛!

7월 9일 고모이 3월 2일 시작반

9급 이투스

4월 11일 국가직시험 특별기획특강

합격률 99%

모의고사 9급 문제풀이

합격

1등은 이유가 있다!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 통하라!! 학원 선택이 합격을 결정한다!!

효능유일 대학생 9급 야간반 개설

한빛고시학원 최근 3년간 합격자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소방직

마길유의 현재수강접수중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앞 234-0234